

보도시점 2025. 2. 28.(금) 11:00 배포 2025. 2. 28.(금) 11:00

美 신임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전방위적 협력 본격 시작

- 최상목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 진행 -
- 상호관세 등 美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고려 등 요청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8(금) 08:15(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신임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신용등급 유지(Fitch, 2.6일)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와 우리 정부의 경제상황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과 베센트 장관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최근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안보 문제 관련 긴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을 비롯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국제 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신채용 (shinchy@korea.kr)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7670)
		담당자	사무관	최재원 (choi jw15@korea.kr)
		담당자	사무관	홍가람 (ddal lokx2@korea.kr)

